

美 대공황 뉴딜정책은 성공했나

역사 변곡점 배경은 경제적 문제



경제로 읽는 교양 세계사

오형규 지음

미래가 불안한 것은 전망이 어두워져서라기보다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경제적 관점은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찾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역사를 보는 눈도 그렇다. 단순히 시대적 흐름의 순서대로 나열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시대를 번모시켰던 경제적 배경을 바라보면 색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물론 '역사'하면 대체로 왕조의 연대기나 제국의 흥망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흔히 왕이 바뀌면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은 정치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다. 생산수단, 생활수준의 발전이 일과 생활 방식은 물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꾼다.

한국경제신문 오형규 논설위원이 펴낸 '경제로 읽는 교양 세계사'는 경제적 상식을 물론 역사 상식, 그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고루 담고 있다. 한마디로 책은 경제 원리라는 프리즘으로 역사를 다시 훑어보고 미래의 나침반으로 삼아

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찬란한 고대 그리스 역사와 함께 화폐 경제를 배우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으며 2015년 그리스 디폴트 사태와 중우정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식이다.

또한 1920년대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가계부채, 청년실업, 인구절벽에 직면한 2016년 말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관통하고 있다.

미국의 대공황으로 시작된 세계 공황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공황에 맞서는 뉴딜정책은 성공을 거두었는지,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각 장은 '이코노믹 키워드', '함께 보는 문학', '함께 읽는 시사'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주제들을 소개해 역사와 경제, 인문학을 함께 아우를 수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는 반드시 경제적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토대가 정치, 법, 제도, 도덕 등의 상부 구조를 결정하고, 이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한 시대의 사상, 철학, 문화, 예술 등의 변화가 경제적 기반을 근거로 한다면 역사와 경제적 토대와의 상관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글담출판사·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6~18세기 서찰에 담긴 사대부 선비들의 생각



명문가의 문장

석한남 지음

맹자는 "군주 된 사람이 백성의 복리를 도모하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백성을 괴롭히면 타도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을 빗대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정치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충(忠)과 역(逆)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곤 했다. 한 개인 나아가 가문의 부침과 영욕은 다분히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비들이 남긴 문장이

나 서간은 그들의 충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들의 글에는 일상이나 정치 현장에서 부딪치며 느꼈던 갈등이나 속내가 드러워져 있다.

20년간 조선시대 선비들의 친필 편지를 수집해온 석한남 한학자가 '명문가의 문장'을 펴냈다. 저자는 방대한 서찰에서 얻은 정보 가운데 성리학적 권위와 체통 뒤에 감춰진 사대부들의 이념, 행과 행 사이에 드러난 명문가 선비들의 민낯에 주목한다.

'편지에 담긴 선비들의 삶과 인연'이라는 부제가 이를 방증한다. 우암 송시열과 백호 윤희, 탄옹 권시와 미수 허목 등 16~18세기 양반들의 편지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서찰 중에는 험난한 세월을 거치면서 찢겨거나 불에 그을리는 등 훼손된 것들도 적지 않다.

<학교재·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카카오 콩은 어떻게 '신이 내린 음식'이 됐을까

초코홀릭

동 렘지 지음



초콜릿은 발렌타인데이에 연인에게 주는 대표 선물이다. 등산과 같은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 중에도 먹기 좋은 간식이다. 또한 우울할 때 먹으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인간은 초콜릿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그렇다면 초콜릿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몇 종류가 있을까? 초콜릿 전문가이자 빈투바 초콜릿 제조자인 동 렘지가 펴낸 '초코홀릭'은 이에 대한 답을 준다.

책 제목인 '초코홀릭'은 초콜릿에 중독된 사람을 일컫는 말로 1960년대 대중 문화에서 시작됐다. 그만큼 중독적인 매력에 있는 것으로 애호가들이 많다는 의미다.

저자에 따르면 인류는 4000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초콜릿을 즐겨먹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 곳곳에는 복잡한 초콜릿의 역사가 드러워져 있다. 중앙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코코아를 마시는 관행이 있었고 또한 숭배했다. 중앙아메리카 문명 중 많이 알려진 민족인 아스테크 민족도 코코아를 마셨다. 이들은 코코아를 신이 내린 음식이라 믿었고 종교의식



초콜릿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톤 이상이 소비될 만큼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가운데 하나다. <시그마북스 제공>

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마셨다.

초창기에는 현재의 형태가 아닌 카카오콩을 둘러싼 과육 즙으로 만든 음료로 마셨다. 이후에는 코코아콩을 갈아 마셨다. 물론 이때의 주 소비 대상은 지배계층이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카카오나무가 아마존분지에서 처음 자라기 시작했고, 중앙아메리카산 카카오는 안데스 고산 지대와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인들이 물물교환 하면서 카카오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16세기에는 스페인 탐험가들이 처음으로 향료를 첨가한 쓴술한 음료로 마셨다. 300년이 지나서야 오늘날 즐기는 판 초콜릿과 당과제품의 형태를 갖게 됐다. 그러다 1847년 영국에서 최초로 판 초콜릿이 나왔고 1875년에는 밀크초콜릿이 발매돼 큰 인기를 누렸다.

1900년대 초에는 초콜릿과 크림이 섞인 가나슈가 나왔고 그 덕에 초콜릿에

다양한 맛을 더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수제초콜릿 열풍이 불면서 신선한 재료에 장인의 기술이 더해진 고급 초콜릿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초콜릿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초콜릿은 카카오나무의 꼬투리 안에 있는 카카오콩으로 만들어진다. 카카오콩을 초콜릿으로 만드는 데는 카카오콩을 수확하고 발효시키는 것부터 몰딩과 포장까지 14개 공정을 거친다.

카카오라는 이름의 유래도 흥미롭다. 명칭의 기원은 마야왕국에서 카카오를 '카카우(kakaw)'라고 불렀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유명한 스웨덴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카카오나무의 학명을 '테오브로마 카카오'라고 불렀다. 이는 '식물의 음식'이라는 뜻인데, 오늘날 초콜릿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영어식 명칭 '코코아'를 혼용하고 있다(저자는 '카카오'를 발효 이전 단계로, '코코아'는 그 이후 단계라고 본다).

책에는 초콜릿과 건강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코코아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매일 소량씩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설탕이나 지방,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 하나, 초콜릿 속의 화학물질은 엔도르핀을 생성해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 사람에게 빠질 때 느끼는 행복한 느낌이 그대로 재현된다. 초콜릿은 체온보다 살짝 낮은 온도에서 녹는데 감칠맛과 달콤한 향기가 퍼진다. 이 감각적 쾌감이 초콜릿에 빠져들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처럼 사람들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톤 이상이 소비되며 약 1100억 달러가 투자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페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중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홀릭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시그마북스·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적·로큰롤·비밀실험 ... 미지의 현상서 느끼는 공포



리바이벌

스티븐 킹 지음

기적, 로큰롤, 비밀 실험 등... 악몽 같은 대미를 향해 질주하는 짜릿한 여정이 한 편의 소설속에 펼쳐진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스티븐 킹의 '리바이벌'은 미지의 현상에서 느끼게 되는 원초적인 공포를 다룬다. 이야기는 노년에 접어든 주인공 제이

미 모턴이 그의 인생을 흔든 "제5의 인물이자 변화 유발자이자 숙적"인 제이컵스의 만남을 회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평범한 가정의 막내아들인 제이미는 여섯 살 때 처음으로 마을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 제이컵스와 조우한다. 전기에 비대한 관심이 있던 제이컵스는 여러 가지 실험과 발명품을 통해 단번에 제이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설은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실감과 절망을 날날이 보여줌으로써 비정하고 지독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황금가지·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쿠바 혁명군 사령관의 삶과 신앙, 종교와 정치



카스트로, 종교를 말한다

피델 카스트로 & 프레이 베토 대담

브라질의 도미니코회 수사신부 프레이 베토 사제와 쿠바 혁명군 사령관 피델 카스트로의 대담집 '카스트로, 종교를 말한다'가 출간됐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번역 출판된 화제의 대담집이다. 1985년 5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 혁명 궁전에 있는 카스트로의 사무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네 번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삶과 신앙, 종교와 정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일관된 혁명가일 수 있으며 그 둘 사이에 극박할 모순은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베토)

"너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연대를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카스트로)

두 사람의 대화를 읽어다 보면, 옮긴이의 말처럼 누가 혁명가인지, 누가 신학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해와 화해, 상호 존중이 서로에게 전달된다.

<살림터·2만1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식카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스타일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흠이 시드를 타고 먼저 들어가지 않는 신탈 동량상 견지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제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 냉난방비 절감 |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 6년 무상 A/S

종로문화센터 옥상시공 | 시공지역: 상명대학교/강명호전문소/대전대학교/태백시보전소/안양시립도서관/경희대학교/인제대학교/인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